

뜻이 함축된 로어성구의 단어화

최영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의 산물이며 사회생활의 반영인 언어는 시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되고 풍부해진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19페이지)

현시기 외국어교육에서는 해당 언어에서 일어나는 변화현상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원리적으로 배워줌으로써 학생들이 실지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 글에서는 뜻함축의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로어성구의 단어화과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최근시기 로어에서 새 어휘들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방법들중의 하나는 성구에 토대한 단어조성이다.

로어성구에 토대한 단어조성과정은 비록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합법칙적으로 있게 되는 과정으로서 거기에는 어휘론이 관용어구론, 성구론과 맺게 되는 밀접한 련계가 반영되어있다. 이 련계가 언어내에서 단어로부터 관용어와 성구으로, 반대로 성구로부터 관용어와 단어으로 부단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된다.

어휘적수준사이의 호상작용결과로 형성되는 로어단어들은 출발성구와의 형태구조적 및 의미론적파생성의 관계에 있게 된다.

로어성구에 토대하여 새 단어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수법중의 하나는 성구구성요소들중의 하나를 분리해내는것이다. 이 수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은 이미 있던 단어들과 형태론적 및 의미론적측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례: черт возьми(제길, 젠장) → чертыхаться(제길할것 하고 욕질하다)

витать в облаках(공상에 잠기다) → витать(환상에 잠기다)

разводить бодягу(시시한 룡담과 익살로 세월을 보내다) → бодяга(부질없는 룡질)

втирать/втереть очки(속이다, 기만하다) → втирать(간계를 써서 붙이다)

закладывать за воротник(술을 잔뜩 마시다) → закладывать(술을 많이 마시다)

нести ахинею(부질없는 소리를 하다, 횡설수설하다) → ахинея(허튼소리)

хватить через край(지나친 짓을 하다) → хватить(정도를 넘다)

разводить тары-бары(쓸데없는 말을 하다) → тарабарить(떠벌이다)

로어성구구조로부터 분리될수 있는 잠재적가능성은 많은 성구들의 구성요소속에 존재하지만 이것이 결코 언제나 일어나게 되는것은 아니다.

로어성구로부터 만들어지는 새 단어형태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파생방향문제 즉 어휘소가 성구로부터 만들어졌는가, 반대로 어휘소로 하여 성구가 조성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례: тянуть канитель(단조로운 일을 하다, 필요없는 일을 질질 끌다, 불필요한 품을 들

이다) → канитель(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지루하게 끄는 일). садиться на своего <любимого> конька(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꺼내다) → конёк(좋아하는 화제, 늘 하는 생각)

우의 실례와 같은 유형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대응관계에 놓이는 단어들을 성구어휘적응축의 수법에 의해 성구로부터 만들어진것으로 보고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들이 해당한 성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겨난 단어의 전의라고 보고있다.

로어동사와 동사파생성구의 의미적호상련관성을 다음과 같은 경우로 갈라 분석할수 있다.

첫째로, 비록 로어사전의 올림말에는 해당한 의미가 올라있지 않지만 로어성구의 의미와 어휘소의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 이때에는 성구가 동사에 의미를 파생시킨것으로 볼수 있다.

례: копать – копать могилу(무덤을 파다)

зарубить – зарубить на носу(똑똑히 기억해두다, 머리에 새겨두다)

витать – витать в облаках(공상에 잠기다, 환상의 세계에서 살다)

воспрянуть – воспрянуть духом(다시 용기를 내다)

вывести – вывести из терпения(격분케 하다, 분통을 터뜨리게 하다)

우의 실례들과 같은 어휘적단위들이 로어성구로부터 조성되었지만 사전에는 의미상 성구와 똑같은 어휘소의 의미가 올라있지 않다. 실례로 동사 вывести는 회화어에서 《자제력을 잃다, 격분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사전에 올라있는 14개의 어휘의미적류형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찾아볼수 없다. 그대신 вывести из терпения, вывести из равновесия, вывести из себя라는 성구들이 이 의미를 나타내는것으로 되어있다.

둘째로, 로어사전에 호상련관관계에 있는 성구가 원래 가지고있던 의미만이 올라있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 이때에는 출발성구로부터 어휘소가 만들어진것으로 볼수 있다.

례: 동사 помешаться의 의미

① 미치다, 정신이상인 생기다

② 지나치게 열중하다, 폭 빠져버리다

로어사전에 올라있는 동사 помешаться의 이러한 의미는 파생된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출발단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로어에서 -ся가 붙은 동사는 동사로부터만 만들어질수 있으며 로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동음이의어가 지적되어있다.

례: помешать 1 – мешать (방해하다)의 완료태

помешать 2 – (한동안) 휘젓다, 뒤섞다, 혼합하다

우의 실례의 두 동사가 모두 출발단위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며 동사 помешаться의 의미토대는 성구 помешаться в уме(정신나가다, 미치다)라고 볼수 있다.

셋째로, 로어사전에 올라있는 다의적단어들의 의미중의 하나가 성구의 의미와 일치하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 이때에는 출발어휘소로부터 성구가 만들어진것으로 볼수 있다.

례: — 동사 передёргивать/передёрнуть의 의미

①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② (트럼프 등에서) 속이다

③ 외곡하다

④ (고통, 공포 등으로) 경련이 일어나게 하다, 얼굴을 찡그리다

— 성구 **передёргивать/передёрнуть карту**(트럼프장을 속이다)

우의 실례에서 성구는 다의적단어의 한개 의미와 일치한다.

로어성구로부터 만들어지는 단어들을 형태적으로나 형태의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새 단어, 언어에 존재하는 동음이의어, 다의성단어들의 어휘의미론적변종 등과 같은 몇개의 류형으로 분류할수 있다.

로어성구로부터 만들어진 단어가 동음이의어에 속하는가, 다의적단어에 속하는가 하는 계선을 구분하기가 많은 경우 어렵다.

례: ① **волынка** (← **тянуть волынку**)(일의) 고의적인 지연, 건달: 오래 끄는 성가신 일
волынка 동물의 가죽 혹은 오줌개로 만든 바람주머니에 여러개의 관악기들이 달린 민간관악기

② **канитель** (←**тянуть канитель**)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루하게 끄는 일: 헛된 시간
량비

канитель(수를 놓으려고) 매우 가늘게 끈 금속줄

우의 실례 ①에서 두 단어는 서로 동음이의어적관계에 있다. 그러나 실례 ②에서 성구로부터 나온 단어의 의미는 본래 단어의 직접적의미가 전의되어나온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구—단어》라는 단어형태변화체계에서의 뜻함축은 출발성구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들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미 언어속에 존재하는 성구에 토대하여 파생단어를 만들어내는 수법이다. 출발성구와 파생단어는 뜻함축관계에 있으면서 단어조성상 호상련관된 단위로 된다.

뜻함축법은 출발성구가 발전과정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상실하고 그에 맞게 언어와 언어행위에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된 새 단위가 출현하며 따라서 이 단위가 벌써 자립적재생능력을 가지고있는 어휘 즉 다른 준위로 되는데서 나타난다.

로어의 파생어휘소는 반드시 성구의 의미를 담는다. 로어성구의 의미가 실현되는것은 함축된 의미가 실현되는것이며 뜻이 함축된 실현요소에 의하여 말로는 표현되지 않은 요소들의 실제적인 기능과 의미가 실현되는것이다.

례: 출발성구 **закладывать за воротник**(술을 즐기다, 술을 많이 마시다)

파생어휘소 **закладывать**

성구의 이전 구성요소 **за воротник**

우의 실례에서 출발성구의 뜻은 뜻함축법의 결과로 생긴 파생어휘소에 성구의 이전 구성요소가 생략된다고 하여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때 만들어지는 새 단어는 출발성구의 전체의미를 부여받아 《술을 즐기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파생어휘소 **закладывать**는 13개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заложить**와 태쌍을 이룰수 있지만 성구적의미와는 단독으로 호상련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례: **Приехал он в Кедроград из степного Алтая, нанялся плотником. Работал неплохо, но частенько закладывал.**(그는 초원덮인 알타이로부터 께드로그라드로 와서 목수로 고용되었다. 일은 꽤잘하게 하였으나 자주 술을 많이 마시곤 하였다.)

《출발성구 → 출발성구의 의미 → 뜻이 함축된 실현요소 → 뜻함축법에 의해 생긴 어휘소 → 실현된 의미소》라는 과정을 다음의 실례도표에서 볼수 있다.

출발성구	출발성구의 의미	뜻함축법에 의하여 생긴 어휘소	실현된 의미	뜻이 함축된 실현요소
настрять в зубах	지극히 싫어지다, 싫증나다	настрять	지극히 싫어지다, 싫증나다	в зубах
влипнуть в историю	불쾌한 처지에 빠지다	влипнуть	불쾌한 처지에 빠지다	в историю
взбresti в голову	우연히 머리에 떠오르다	взбresti	우연히 머리에 떠오르다	в голову
всплывать / всплыть на поверхность	드러나다, 나타나다, 표면화되다	всплыть	드러나다, 나타나다, 표면화되다	на поверхность

로어성구내에서 구성요소를 분리해내는것은 그것들의 결합성이 어떠한가 하는데 달려 있기때문에 성구론적유착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거의나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당의 과학교육중시사상을 받들어 해당 나라 언어에서 일어나는 변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것을 외국어교육에 옹계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